

“어촌서 인생 2막” 귀어준비 막바지 온 힘

‘도시민 전남 어민되다’ 참여 예비귀어인 18명
여수·영광·함평서 한달살이하며 체계적 교육

전남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수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 등이 마련한 장기 귀어 프로그램인 ‘도시민 전남 어민 되다’에 참여한 도시민들이 한 달 간 양식장 관리, 낚시 및 통발 채집, 빈집 찾기 등을 어민들과 함께 하며 귀어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에는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등에서 온 18명의 예비 귀어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숙박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여수 화태, 영광 구수, 함평 석두어촌계에서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머물게 된다.

예비 귀어인들은 주로 건설업, 유통업, 의류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귀어한 후 어촌 현실에 맞게 해조류, 어패류 등의 유통·가공·판매 등 6차 산업화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들의 연령대는 40대가 8명, 50대 7명, 60대 3명 등이다.

여수 화태·영광 구수·함평 석두 어촌계에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선정한 우수 귀어인들이 어촌계장, 사무장 등을 맡

고 있으며, 이들은 예비 귀어인들을 상대로 종묘 생산 어촌 방문, 위판장 견학 현장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함평 석두에 귀어할 예정인 강승철(54·서울 거주)씨는 지난 18일 낚시 종묘를 생산하는 신안군 안좌도 안좌자율관리공동체를 찾아 “귀어를 막막하게 생각했으나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어촌에서 역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면서 자신감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요식업을 하며 영광 구수어촌계에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주완철(42·서울 거주)씨는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오븐, 발효기 등을 이용해서 수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라며 “어촌에 도움을 주며, 어민들과 어울려 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귀어 예비인 중에는 지난해 12월 귀순한 새터민 부부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들 부부는 북한에서 도어업에 종사했으며, 광주에 거주하면서 귀어하기로 마음을 정한 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전남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등이 진행하고 있는 귀어예비인 장기정착프로그램인 ‘도시민 전남 어민 되다’에 참여한 40~60대 도시민들이 함평 석두마을 갯벌에서 어민들과 함께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도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는 올 초부터 전국 각 도시에서 도시민 전남귀어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귀어인들에 대한 세부정보를 수합해 전국 최초로 어촌계와 예비 귀어인이 만나는 귀어스몰엑스포를 지난 8월 목포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예비 귀어인과 전남 어민들이 전남 우수어촌에서 만나는 ‘전남 귀어의 날’, 단기 어촌 정착 프로그램인 ‘전남 어촌 탐구생활’ 등 예비 귀어인과 어촌계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박종열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결국 귀어를 할 도시민이 살아가야 할 공간은 어촌이며, 이 공동체 안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전남도 도시민귀어정책의 핵심”이라며 “스몰엑스포, 단기 체험, 장기 정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들이 전남 어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한 만큼 도시민의 귀어가 잇따르면서 앞으로 전남 어촌이 활기 넘치게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법원, ‘별장 성접대’ 인정
“사진·동영상 男 김학의”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지만,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차관은 ‘가르마 방향’ 등을 근거로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며 성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 접대가 존재했다고 결론 지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학의가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증거에 등장한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판결 이유에 적시했다.

김 전 차관 사건에서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크게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월주 별장 동영상’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을 두고 김 전 차관 측은 ‘사진 속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 접대 사실을 입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현 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도·한전,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
산학융합지구 준공·신기술연 착공식…연구·기술개발 사업과 연계

전남도와 한국전력은 25일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준공식과 에너지신산업 핵심 연구기관인 에너지 신기술연구소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윤병대 전남도 정부부지사, 김중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용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도의원, 목포대·전남도립대 총장, 나주시장과 각급 유관기관, 기업 대표,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는 지난 2018년 2월 첫 삽을 떴다. 지난 5월 산학융합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준공했다. 사업비는 335억원을 들여 6734㎡ 부지에 9058㎡ 규모의 건물이 지어졌다.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캠퍼스는 강의실과 연구실, 실험실습실, 도서관, 동아리실, 학생식당 등을 고루 갖췄다. 나주 혁신산단 내 고용,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속성장형 거점역할을 한다. 또 캠퍼스와 연계된 기업연구관에는 25개 기업 100여 명의 연구인력이 입주해 대학과 연구개발을 공동 수행한다.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캠퍼스는 9월 개교해 전기 및 제어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신재생에너지전기와, 정보통신



한전과 전남도는 25일 오전 나주혁신산단 내에서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착공식’을 가졌다. 김중갑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리본커팅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과, 모두 4개 학과에서 346명의 학생이 강의와 실습 등 정규 학위과정을 밟고 있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에 대학 캠퍼스를 이전하고 기업 연구관을 조성해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로 운영된다.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현장 맞춤형 교육,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특성화고 신취업-후진화 과정 등을 운영,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에 착공한 한전 에너지신기술연구소는 나주 혁신산단에 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2년 준공할 계획이다. 대전에

위치한 한전 전력연구원의 일부 기능을 이전하기 위해 분원을 건립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력시스템 등 에너지신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존(Zone)을 구성, 운영하게 된다.

이 연구소는 한전의 기술을 기업에 전파하고 사업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에너지밸리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 확산을 통한 에너지밸리 성공전략의 핵심 시설이 될 전망이다.

김중갑 한전 사장은 “미래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을 에너지밸리 입주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전남산 ‘청각’ 식이섬유·미네랄 풍부

도보건강환경연, 식품학적 가치 평가…고지혈증 예방 등 효과

전남산 청각이 풍부한 식이섬유와 유용한 미네랄을 가진 저칼로리 식재료로 분석됐다.

25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017년 전남에서 생산 후 건조, 유통되는 청각과 2018년 전남에서 생산된 생물 청각에 대해 식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일반 성분, 식이섬유, 미네랄 함량과 지방산 조성을 분석해 청각의 식품학적 가치를 평가한 것이다.

연구평가 결과 일반 성분은 수분 5.51%, 조화분 24.09%, 조단백질 15.79%, 조지방 2.47%, 탄수화물 52.14%로 나타났다.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는 45.31%로, 청각이 식이섬유의 풍부한 공급원임이 밝혀졌다.

체액균형 조절, 생체 내 생화학반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미네랄 함량은 나트

륨 8950mg/100g, 마그네슘 1252mg/100g, 아연 0.4mg/100g, 칼슘 807.0mg/100g, 셀레늄 0.4mg/100g 순이었다.

청각의 지방산 가운데 포화지방산은 팔미탄산(36.86%) 등 9종, 불포화지방산은 올레-리놀렌산(20.14%) 등 11종이 밝혀져 우리 몸에 더 좋은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았다. 이는 전남산 청각이 고지혈증 예방 등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송병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장은 “청각은 우리나라 다소비 해조류인 미역 등과 유사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학적 가치가 충분하다”며 “전남 해조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다양한 가공 방법과 요리법을 개발하고 유통 경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日, 韓에 “수출규제 철회 한 달 걸려” 언급

정부, 日 시간끌면 지소미아 종료 적극 검토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 관련 대화를 제안하면서 수출규제 철회에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이 이처럼 규제 철회에 걸리는 시간까지 언급하며 수출규제 협의를 위한 대화를 먼저 제안했으면서 ‘아무 양보도 안 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대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1~2달 정도 일본의 태도를 지켜본 뒤 변화가 없다면 판단되면 공언한 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북스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한국 측에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복원을 비롯한 수출 규제 철회

를 논의할 국장급회의를 하라고 제안해왔다. 당시 일본 측은 “수출규제를 되돌리려면 형식적이지만 한국의 수출입 관리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언급한 점에 비춰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 하지만, 향후 일본이 시간 끌기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끝수를 쓴다면 그냥 지소미아를 종료해버리면 된다”면서 “미국도 한일 간 합의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방부, 김정은 해안포 사격지시에 “군사합의 위반”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언론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 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측은 남북한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항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안포 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로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가능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영양 월촌산 부근 땅 703㎡ 전원생활적합 6600만원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 완도읍 망성리 전방 좋은 자연녹지산 3306㎡ 휴양시설 등 적합 1억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치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영산면 신성리 땅 2648㎡ 주택 좋은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서구 마루동 도로점 땅 378㎡ 투자에도 좋은 5억2천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화진리 땅 450㎡ 매도 2억8천
- 무안 동탄면 영산강점 48900㎡ 펜션 14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33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찰·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망 좋은 1억3천

상가 건물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이마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옥 적합 15억천
- 운암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5㎡ 매입 2억 창고·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유동 신축커뮤니티 단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빌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 물건

- 화순군 동면 서성재 무등산 밑 광주 인근 최고별장지역 별장과 원룸·상가·내대지 등과 교환 일함
- 구례군 구례읍 서치천변(광의면) 11050㎡ 다세대·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좋은 6억4천
- 월산동 상업지 땅 220㎡ 5층 건물 768㎡ 리모델링 필요 은행 3억 매도 6억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 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품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합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7년
광주일보
창설 67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케이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 구	·동 광 266-1920 ·신 안 222-8171 ·용 통 433-1503	·문 흥 266-1960 ·양 산 571-7658 ·우 산 433-1503	·북광주 525-3761 ·오 치 266-7601
동 구	·남 광 675-5530 ·충 앙 222-9054	·동 명 222-9054 ·충 장 222-8171	·동 부 225-6001
남 구	·남 부 652-0175 ·송 하 675-6605	·백 은 651-1833 ·진 월 671-7276	·봉 선 675-5530
서 구	·광 천 382-5788 ·운 천 376-7153 ·화 정 369-1625	·상 무 372-2352 ·치 평 376-6511	·서광주 369-1625 ·풍 단 603-0311
광산구	·운 남 952-1687 ·하 남 955-0451	·월 곡 959-1920 ·광 산 944-0444	·침 단 973-2900